내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

(마태복음 5:13~48)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
주님은 본문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언급하십니다.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들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써 온전해져서 이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이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 나타난 다른 보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마음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로 똑

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에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다.
또 33~34절을 보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결코 내가 주체적인 입장이 될 수 없음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또 39~40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말씀하셨고, 43~44절에서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6~47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읽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너무도 쉽게 말씀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처럼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더러 성인처럼 살라고 해도 불가능할진대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시니 불가능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글자 연습을 할 때 점선으로 그려진 글자본이나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본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점선을 따라 그리면 글씨가 완성되고 밑그림에 색칠을 해나가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산상수훈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화나게 하는 형제 앞에서 화내지 않는 모습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셈입니다. 또 아무리 매혹적인 이성 앞에서도 음욕을 품지 않는 모습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나의 모습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셈입니다. 이 점선을 따라 실선으로 그려가고 색깔을 칠해갈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점선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제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어떠한 말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산상수훈 또한 지켜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새 계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율법과 산상수훈의 가르침 또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계명과 가르침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리 뱀 장대를 들었을 때에 바라본 자들만이 불 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계명과 가르침들이 다 지켜지게 되고 예수님께 일어났던 역사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팔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지속적으로 마음의 시선을 드릴 때에 마음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명현현상으로 비유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 땅에 대해 죽고 하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과 하늘의 기준을 팔복의 여덟 가지 측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 애통하게 된다, 온유하게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긍휼히 여기게 된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들이 모두 마음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과 빛이 언급됩니다. 소금과 빛은 외부에 영향을 주는 대상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지속적으로 마음의 시선을 드릴 때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두드러지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드러짐과 다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봄을 통해 율법이 지켜지고 이에 더해 산상수훈의 가르침까지 지켜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통증치료를 비유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통증클리닉에서 활용되는 신경차단요법과 같은 효과를 일으킵니다. 특정 부위의 고통으로 인해 환자가 괴로워할 때에 신경차단요법이 실시될 때가 있습니다. 통증차단요법은 상처가 나거나 질병이 발생한 환부 주변의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차

단시켜서 뇌까지 고통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해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써 존재하는 한 온전함을 발휘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함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22절을 살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라가"는 골이 빈 놈이라는 심한 욕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번역된 말은 본래 반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에 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유익에 손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화를 낸다면 살인죄를 지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달을 막으면 화는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전달을 끊는 신경차단요법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동안 육체와 마음 사이에는 신경차단요법과 마찬가지로 차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까지 오르게 되는 역사가 십자가의 약속을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늘을 갖게 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비롯한 팔복의 은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나를 화나게 하는 형제와 접하고 있는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이 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주 대하는 형제를 향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이성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이 육체의 감각을 통해 마음에 전달되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차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육체와의 연관성에서 음욕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 때에 내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이 되어서 매혹적인 이성에 대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내 것을 가져가거나 빼앗아가려는 사람에게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뜻은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의 신경은 차단되어야 하고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면하는 사람이나 사건에 마음을 한 푼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다는 것은 곧 마음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시는 반응기가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앞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이기에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기에 또한 기가 막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행위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장 잘 지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은 점선으로 표시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점선을 따라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기를 유지함으로써 죽으신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니 사회적으로도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소금은 목회자들의 애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위 소금신학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짠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해주는 방부제의 역할도 합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하였기에 재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드려지는 각종 제사에서도 소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삼으신 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금의 기본적 용도는 음식의 간을 더해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맛보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께 너무나 맛이 없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뱉어버리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사건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의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기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앗수르에 의해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 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까지 파괴되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맛을 느끼실 수 없고 토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진다면 세상이라는 음식에 대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소금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한 차별을 느끼며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맛있는 음식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의 암흑 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경차단치료를 하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체의 감각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초신경으로 작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도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20절을 살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지속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율법과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다 지켜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 질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잘 것 없는 인격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다니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생활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서는 팔복의 변화가 나타나고 사

회적으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산상수훈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질 때에 해야 될 일은 윤리성과 도덕성의 강화가 아닙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시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율법주의와 대항해서 싸웠던 이유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에 이르고 싶다면 더욱 믿음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한 가지로 산상수훈이 충족되고 신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지켜지는 기적 중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선으로 찍어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한 가지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몸이 하나님의 말초신경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반응만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